

# 뉴스 스크랩 [2016.8.30(화)~9.1(목)]

2016. 9. 1 (목)

인쇄 면수	제목	언론사	카테고리	면수
1	영남대, 자동차 기능안전 SW연구센터 개소	뉴스1		
2	영남대 '자동차 기능안전 SW 연구센터' 열었다	한국일보		
3	영남대 '자동차 기능안전 SW연구센터' 문열어	동아일보	지방	T18면
4	영남대 자동차 기능안전 SW센터 개소	서울경제	종합	Y31면
5	영남대, 자동차미래산업 이끈다	경북매일	경북	009면
6	車 ICT 기술융합 전문인력 양성 본격화	대경일보	문화	013면
7	영남대, 미래 스마트 자동차 시장 이끈다	경북신문	종합	012면
8	영남대, 산 학 연 관 참여 '미래 사업' 이끈다	대구광역일보	종합	010면
9	영남대, '차세대 자동차 산업' 이끈다	뉴시스		
11	영남대, 내달 1일 '자동차 기능안전 SW 연구센터' 개소	아시아뉴스통신		
13	영남대, 산·학·연·관 참여 '자동차 기능안전 SW 연구센터' 이끈다	BBS		
14	영남대, 1일 자동차 기능안전 SW연구센터 개소	전자신문		

# 영남대, 자동차 기능안전 SW연구센터 개소



(대구·경북=뉴스1) 이재춘 기자 | 2016-09-01 14:22:09

1일 영남대에서 열린 자동차 기능안전 SW연구센터 개소식/사진제공=영남대© News1

영남대는 1일 차세대 자동차 핵심 부품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담당할 자동차 기능안전 SW(소프트웨어)연구센터를 개소했다.

대학과 미래창조과학부, 경북도,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주)아진산업 등 15개 산·학·연·관이 참여해 설립한 이 센터에는 교수와 산업체 전문가, 박사급 연구원 등 70여명이 일하게 된다.

영남대는 이 센터를 통해 자동차 전장부품의 기능안전 국제표준 기반 융합부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센터 운영을 총괄할 박용완 영남대 정보통신공학과 교수는 "자동차와 ICT(정보통신기술) 기술의 융합은 스마트 자동차 실현의 필수적인 요소"라며 "산·학·연 협력을 통해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전문인력을 길러 차세대 스마트 자동차와 자율주행자동차 융합부품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시장조사기관인 스트래티지 에널리틱스(SA)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원가에서 전장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30%에서 2020년 50%로 높아지고, 시장 규모는 2020년 3033억달러(34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영남대 '자동차 기능안전 SW 연구센터' 열었다

한국일보

2016.09.01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카카오톡

프린트글자확대글자축소

영남대가 1일 '자동차 기능안전 SW 연구센터' 개소식을 하고 있다. 영남대 제공/2016-09-01(한국일보)

영남대가 1일 차세대 자동차 산업을 주도할 핵심 부품 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자동차 기능안전 SW 연구센터'를 열었다.

이 연구센터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지자체, 연구소, 자동차 및 IT 관련 6개 기업, 대학 등 총 15개 산학연관이 참여한다.

2019년까지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국고지원금 29억원과 지자체, 기업, 대학 등에서 38억5,000만원이 투입되고 교수와 산업체 전문가, 박사급 연구원 등 70여명의 인력이 참여한다.

이 센터를 총괄하는 박용완 영남대 정보통신공학과 교수는 “영남대가 차세대 스마트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 융합부품 시장을 선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고, 노석균 영남대 총장은 “신성장 동력 발굴을 통한 지역 산업 발전과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심적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준호기자 jhjun@hankookilbo.com

## 영남대 '자동차 기능안전 SW연구센터' 문열어

영남대는 1일 자동차 기능안전 소프트웨어 연구센터를 연다.

올해 5월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통신기술(ICT) 지원사업 선정에 따라 경북도와 경산시, 경북IT 융합산업기술원, 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 (주)이모션, (주)베이다스, (주)에스엠씨, (주)브이아이엠, 자미 등 15개 기관이 공동 운영한다. 2019년까지 67억5000만 원을 들여 자동차 융합 부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전문 인력을 육성한다. 참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인

력을 공급하는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1일 개소식에는 노석균 영남대 총장과 최영조 경산시장, 박성수 경북도 창조경제산업실장, 아진산업 성동진 선행연구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센터를 총괄하는 박용완 영남대 정보통신공학과 교수는 "자동차와 ICT의 융합은 스마트(지능형) 및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에 필수적인 기술"이라며 "산학 협력을 통해 독보적인 융합 부품 기술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서울경제**

2016년 08월 31일 수요일  
Y31면 종합

### 영남대 '자동차 기능안전 SW센터' 개소

영남대학교는 다음달 1일 '자동차 기능안전 소프트웨어(SW) 연구센터' 개소식을 갖는다. 이 센터는 영남대가 정부의 '대학ICT연구센터 지원사업'에 선정돼 설립됐다. 미래부, 경산시,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아진산업 등 15개 산·학·연·관이 참여하며 2019년까지 국비 등 38억원이 투입된다. 사업을 통해 자동차 전장부품의 기능안전 융합부품 SW를 개발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손성락기자

# 영남대, 자동차미래산업 이끈다

## ‘자동차 기능안전 소프트웨어 연구센터’ 오늘 문 열어

### 총 38억 투입... 15개 산·학·연·관 전문가 70여명 참여

【경산】 영남대가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자동차 미래 사업을 견인한다.

영남대는 다음 달 1일 대학 CRC에서 ‘자동차 기능안전 소프트웨어 연구센터(센터장 박용완)’를 개소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학은 지난 5월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추진하는 ‘대학 ICT 연구센터 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 29억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 기능안전 소프트웨어 연구센터는 미래부를 비롯해 경북도와 경산시,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 자동차 및 IT관련 6개 기업 (주)진산업, (주)모션, (주)베이다스, (주)에스엠씨, (주)브이아이엠, 자미), 대학 등 총 15개 산·학·연·관이 참여한다.

오는 2019년까지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국고 지원금 29억원을 비롯해 지자체, 기업, 대학 등에서 총 38억5천만원이 투입되며 교수와 산업체 전문가, 박사급 연구원 등 총 70여명의 인력이 참여한다.

영남대는 산·학·연 협력을 통해 자동차 전장부품의 기능안전 국제표준 기반 융합 부품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지적 재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혁신적인 제품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자동차 ICT 기술 융합 시대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참여기업의 산업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에 전문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산학협력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기능안전 소프트웨어 연구센터를 총괄하는 박용완 영남대 정보통신공학과 교수는 “자동차와 ICT 기술의 융합은

우리 삶의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스마트 자동차 실현에 필수적인 차세대 기술로 현재 자동차 제조사를 비롯해 부품업체, IT업체 간의 융합기술 개발이 시작되는 단계에 있다”면서 “이번 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영남대가 산·학·연 협력을 통해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해 차세대 스마트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 융합 부품 시장을 선도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시장조사기관인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원가에서 전장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30%에서 2020년에는 50%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 전장부품 시장 규모도 2020년 3천33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영남대 ‘자동차 기능안전 소프트웨어 연구센터’가 지역 자동차 부품 업체의 국내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미래 자동차 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심한식기자

# 車 ICT 기술융합 전문인력 양성 본격화



## ‘기능안전 SW 연구센터’ 설립 지자체·기업·대학 등 참여 미래 車 산업 핵심 역할 기대

영남대가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자동차 기능안전 SW 연구센터’를 이끈다.

영남대는 지난 5월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대학ICT연구센터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29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다. 영남대는 오는 9월 1일 영남대 CRC에서 ‘자동차 기능안전 SW 연구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자동차 기능안전 SW 연구센터’는 미래 부를 비롯해 지자체(경상북도, 경산시), 연구소(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경북차량융입베디드기술연구원, 자동차 및 IT 관련 6개 기업((주)아진산업, (주)이모션, (주)베이다

스, (주)에스엠씨, (주)브이아이엠, 자미), 대학 등 총 15개 산·학·연·관이 참여한다.

2019년까지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국고 지원금 29억 원을 비롯해 지자체, 기업, 대학 등에서 총 38억5000만 원이 투입되며, 교수와 산업체 전문가, 박사급 연구원 등 총 70여 명의 인력이 참여한다.

영남대는 산·학·연이 협력을 통해 자동차 전장부품의 기능안전 국제표준 기반 융합부품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지적 재산을 확보하고 혁신적인 제품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자동차 ICT 기술 융합 시대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산업 경쟁력 강화 뿐만 아니라 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에 전문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산학협력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시장조사기관인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원가에서 전장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30%

에서 2020년에는 50%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자동차 전장부품 시장 규모는 2020년 3033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영남대 ‘자동차 기능안전 SW 연구센터’가 지역 자동차 부품 업체의 국내외 경쟁력 강화와 함께 미래 자동차 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기능안전 SW 연구센터를 총괄하는 박용완 교수는 “자동차와 ICT 기술의 융합은 우리 삶의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스마트 자동차 실현에 필수적인 차세대 기술이다. 현재 자동차 제조사를 비롯해 부품업체, IT업체 간의 융합기술 개발이 시작되는 단계에 있다”며 “이번 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영남대가 산·학·연 협력을 통해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해 차세대 스마트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 융합부품 시장을 선도하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산/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 영남대, 미래 ‘스마트 자동차’ 시장 이끈다

영남대가 차세대 스마트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 융합부품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다.

영남대는 9월 1일 오전 10시 30분 영남대 CRC에서 ‘자동차 기능안전 SW 연구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영남대는 지난 5월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추진하는 ‘대학 ICT연구센터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29억 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 기능안전 SW 연구센터’는 미래부를 비롯해 지자체(경북도, 경산시), 연구소(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 자동차 및 IT 관련 6개 기업(㈜아진산업, ㈜이모션, ㈜베이다스, ㈜에스엠씨, ㈜브이아이엠, 자미), 대학 등 총 15개 산·학·연·관이 참여한다.

2019년까지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자동차 기능 SW 연구센터’ 개소  
15개 산학연관 합동 사업 본격  
2019년까지 38억 5천만원 투입  
전문가·연구원 등 70여명 참여  
신제품 창출 국내외 경쟁력 강화  
기술력 확보·전문인력 양성 등  
자율주행자동차 부품개발 선도**

국고 지원금 29억 원을 비롯해 지자체, 기업, 대학 등에서 총 38억 5천만 원이 투입되며, 교수와 산업체 전문가, 박사급 연구원 등 총 70여명의 인력이 참여한다.

영남대는 산·학·연 협력을 통해 자동차 전장부품의 기능안전 국제표준 기반 융합부품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지적 재산권을 확보하고 혁신적인 제품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자동차 ICT 기술 융합 시대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산업 경쟁력 강화 뿐만 아니라 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에 전문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산학협력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시장조사기관인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원가에서 전장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30%에서 2020년에는 50%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자동차 전장

부품 시장 규모는 2020년 3033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돼 영남대 ‘자동차 기능안전 SW 연구센터’는 지역 자동차 부품 업체의 국내외 경쟁력 강화와 함께 미래 자동차 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자동차 기능안전 SW 연구센터를 총괄하는 박용완 영남대 정보통신공학과 교수는 “자동차와 ICT 기술의 융합은 우리 삶의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스마트 자동차 실현에 필수적인 차세대 기술이다. 현재 자동차 제조사를 비롯해 부품업체, IT업체 간의 융합기술 개발이 시작되는 단계에 있다”면서 “이번 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영남대가 산·학·연 협력을 통해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해 차세대 스마트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 융합부품 시장을 선도하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류상현기자

## 영남대, 산·학·연·관 참여 ‘미래 사업’ 이끈다

### 다음달 1일 ‘자동차 기능안전 SW 연구센터’ 개소식 가져

영남대가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자동차 기능안전 SW 연구센터’를 이끈다.

영남대는 지난 5월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추진하는 ‘대학ICT연구센터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29억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남대는 다음달 1일 오전 10시30분 영남대 CRC에서 ‘자동차 기능안전 SW 연구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자동차 기능안전 SW 연구센터’는 미래부를 비롯해 지자체(경북도, 경산시), 연구소(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 자동차 및 IT 관련 6개 기업(㈜아진산업, ㈜이모션, ㈜베이다스, ㈜에스엠씨, ㈜브이아이엠, 자미), 대학 등 총 15개 산·학·연·관이 참여한다.

2019년까지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국고 지원금 29억 원을 비롯해 지자체, 기업, 대학 등에서 총 38억5000만원이 투입되며 교

수와 산업체 전문가, 박사급 연구원 등 총 70여명의 인력이 참여한다.

영남대는 산·학·연 협력을 통해 자동차 전장부품의 기능안전 국제표준 기반 융합 부품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지적 재산을 확보하고 혁신적인 제품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자동차 ICT 기술 융합 시대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산업 경쟁력 강화 뿐만 아니라 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에 전문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산학협력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시장조사기관인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원가에서 전장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30%에서 2020년에는 50%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자동차 전장부품 시장 규모는 2020년 3033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영남대 ‘자동차 기능안전 SW 연구센터’가 지역 자동차 부품 업체의 국내외 경쟁력 강화와 함께 미래 자동차 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경운 기자

# 영남대, '차세대 자동차 산업' 이끈다

**NEWSIS**

2016.08.30

기사등록 일시 [2016-08-30 10:22:49]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영남대가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자동차 기능 안전 SW 연구센터를 설치하는 등 미래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30일 영남대에 따르면 지난 5월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추진하는 대학 ICT연구센터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29억 원을 지원받아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대학측은 오는 9월 1일 오전 영남대 CRC에서 ‘자동차 기능안전 SW 연구센터’ 개소식을 갖는다.

자동차 기능안전 SW 연구센터는 미래부를 비롯해 지자체(경북도·경산시), 연구소(경북IT융합산업기술원·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 자동차 및 IT 관련 6개 기업(주아진산업·주이모션·주베이다스·주에스엠씨·주브이아이엠·자미), 대학 등 총 15개 산·학·연·관이 참여한다.

2019년까지 진행되는 이 사업은 국고 지원금 29억 원을 비롯해 지자체, 기업, 대학 등에서 총 38억5000만 원이 투입되며, 교수와 산업체 전문가, 박사급 연구원 등 총 70여명의 인력이 참여한다.

영남대는 산·학·연 협력을 통해 자동차 전장부품의 기능안전 국제표준 기반 융합부품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지적 재산을 확보하고 혁신적인 제품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자동차 ICT 기술 융합 시대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산업 경쟁력 강화 뿐만 아니라 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에 전문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산학협력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시장조사기관인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원가에서 전장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30%에서 2020년에는 50%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 전장부품 시장 규모는 2020년 3,033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영남대 ‘자동차 기능안전 SW 연구센터’가 지역 자동차 부품 업체의 국내외 경쟁력 강화와 함께 미래 자동차 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기능안전 SW 연구센터를 총괄하는 박용완 영남대 정보통신공학과 교수는 “자동차와 ICT 기술의 융합은 우리 삶의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스마트 자동차 실현에 필수적인 차세대 기술이다. 현재 자동차 제조사를 비롯해 부품 업체, IT업체 간의 융합기술 개발이 시작되는 단계에 있다”면서 “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영남대가 산·학·연 협력을 통해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해 차세대 스마트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 융합부품 시장을 선도하는데 앞장 설 것” 이라고 말했다.

# 영남대, 내달 1일 '자동차 기능안전 SW 연구센터' 개소

미래부, 지자체, 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 15개 기관 참여  
국고 등 사업비 38억5천만원, 교수·박사급 연구원 등 70여명 참여

(아시아뉴스통신=박종률기자) 기사입력 : 2016년 08월 30일 10시 34분  
영남대학교(총장 노석균)는 다음달 1일 오전 영남대 CRC에서 '자동차 기능안전 SW 연구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영남대는 지난 5월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대학ICT연구센터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29억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 기능안전 SW 연구센터'는 미래부를 비롯해 지자체(경북도, 경산시), 연구소(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 자동차 및 IT 관련 6개 기업(㈜아진산업, ㈜이모션, ㈜베이다스, ㈜에스엠씨, ㈜브이아이엠, 자미), 대학 등 총 15개 산.학.연.관이 참여한다.

오는 2019년까지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국고 지원금 29억원을 비롯해 지자체, 기업, 대학 등에서 총 38억5000만원이 투입되며 교수와 산업체 전문가, 박사급 연구원 등 총 70여명의 인력이 참여한다.

영남대는 산.학.연 협력을 통해 자동차 전장부품의 기능안전 국제표준 기반 융합부품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지적 재산을 확보하고 혁신적인 제품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자동차 ICT 기술 융합 시대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산업 경쟁력 강화 뿐만 아니라 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에 전문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산학협력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기능안전 SW 연구센터를 총괄하는 박용완 영남대 정보통신공학과 교수는 "자동차와 ICT 기술의 융합은 우리 삶의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스마트 자동차 실현에 필수적인 차세대 기술이다. 현재 자동차 제조사를 비롯해 부품업체, IT업체 간의 융합기술 개발이 시작되는 단계에 있다"면서 "이번 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영남대가 산.학.연 협력을 통해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해 차세대 스마트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 융합부품 시장을 선도하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음달 1일 영남대에서 열리는 '자동차 기능안전 SW 연구센터' 개소식에

는 노석균 영남대 총장, 최영조 경산시장, 박성수 경북도 창조경제산업실장, (주)아진산업 성동진 선행연구소장 등 사업 참여 15개 기관에서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영남대, 산·학·연·관 참여 '자동차 기능안전 SW 연구센터' 이끈다

BBS

2016.08.30

김종렬 기자 | 승인 2016.08.30 16:29

영남대가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자동차 기능안전 SW 연구센터'를 이끈다.

'자동차 기능안전 SW 연구센터'는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해 경북도, 경산시,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 아진산업, 이모션, 베이다스 등 15개 산·학·연·관이 참여해 차세대 자동차 산업 핵심부품 개발과 자동차 ICT 기술융합시대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영남대는 지난 5월 미래부가가 추진하는 '대학 ICT 연구센터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29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여기에다 지자체, 기업, 대학 등의 지원금을 포함해 총 38억5천만원이 투입해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 교수와 산업체 전문가, 박사급 연구원 등 70여명의 연구인력이 참여합니다.

영남대는 다음달 1일 오전 영남대 CRC에서 노석균 총장과 최영조 경산시장, 박성수 경북도 창조경제산업실장, 아진산업 성동진 선행연구소장, 15개 사업참여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 기능안전 SW 연구센터' 개소식을 갖고 사업을 본격화 합니다.

자동차 기능안전 SW 연구센터를 총괄하는 박용완 영남대 정보통신공학과 교수는 "이번 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영남대가 산·학·연 협력을 통해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해 차세대 스마트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융합부품 시장을 선도하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종렬 기자 kjr21c@naver.com

# 영남대, 1일 자동차 기능안전 SW연구센터 개소

전자신문

2016.08.30

영남대(총장 노석균)가 산학연관이 협력해 자동차와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을 이끄는 자동차 기능안전 SW연구센터를 개소한다.

자동차 기능안전 SW연구센터(센터장 박용완)는 1일 영남대 CRC에서 개소식을 갖고 차세대 자동차산업 핵심부품 개발 및 인력양성사업을 시작한다.

자동차 기능안전 SW연구센터는 지난 5월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대학ICT 연구센터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올해부터 오는 2019년까지 국비 29억원을 지원받는 사업이다. 지자체와 기업, 대학이 출연해 총 38억 5000만원이 투입된다.



영남대, 1일 자동차 기능안전 SW연구센터 개소

경북도, 경산시,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경북차량임베디드기술연구원, 아진산업, 이모션, 브아아이엠 등 6개 기업을 포함한 15개 산·학·연·관이 사업에 참여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관련분야 전문가는 70여명에 달한다.

센터는 앞으로 자동차 전장부품의 기능안전 국제표준 기반 융합부품 SW를 개발,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 ICT기술 융합시대에 필요한 전문인력도 양성한다.

영남대는 센터가 지역 자동차부품업체의 국내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자동

차산업에서 핵심연구기관으로 성장하는데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게티이미지뱅크<©게티이미지뱅크>



박용완 센터장(정보통신공학과 교수)은 “자동차와 ICT 기술의 융합은 우리 삶의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스마트 자동차 실현에 필수적인 차세대 기술이다”면서 “이번 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영남대가 산·학·연 협력을 통해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해 차세대 스마트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 융합부품 시장을 선도하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완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장<박용완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장>

자동차 기능안전 SW 연구센터 개소식에는 노석균 영남대 총장, 최영조 경산시장, 박성수 경상북도 창조경제산업실장, 성동진 아진산업 선행연구소장 등 사업 참여 15개 기관에서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구=정재훈기자 jhoon@etnews.com